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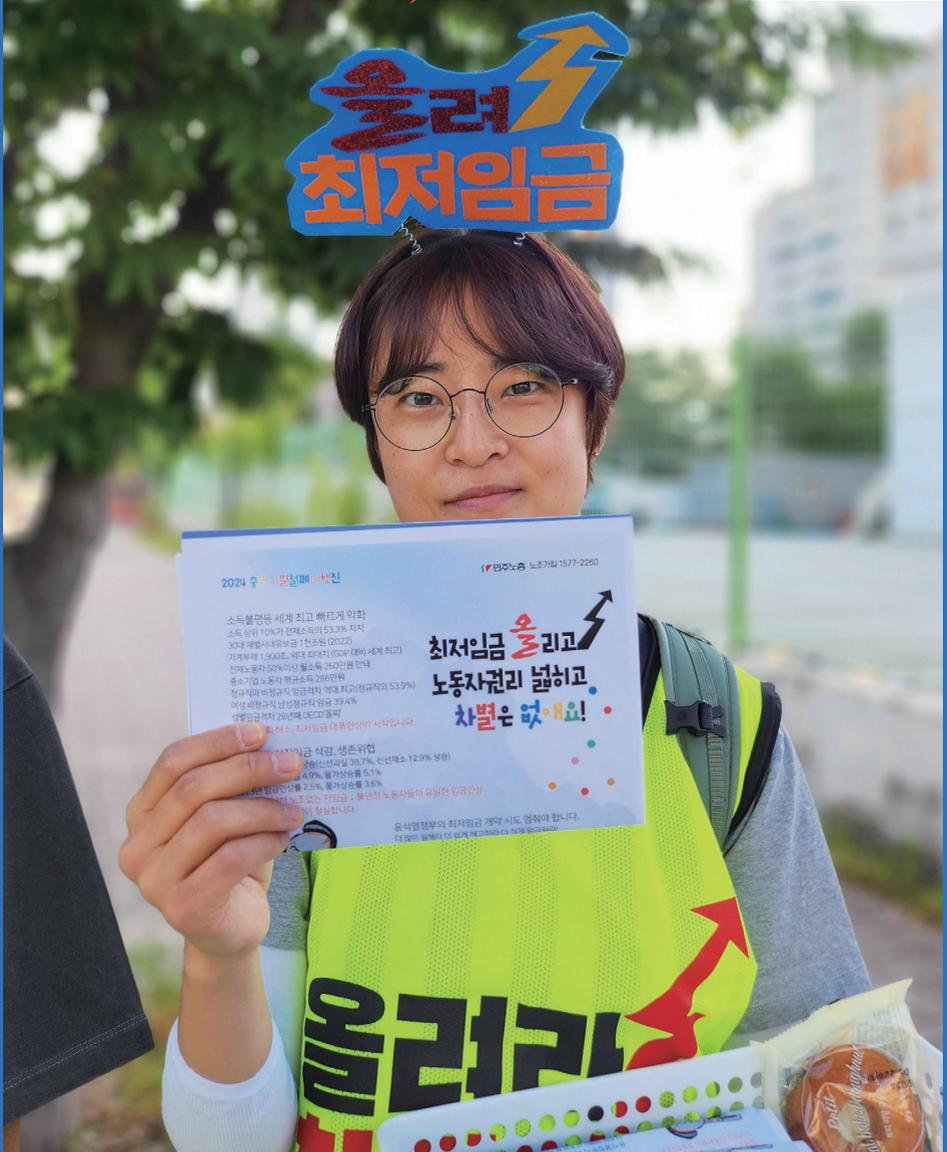
바쁘리락

2024년 07-08월호

- 2, 3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여름철 운영질문과 실 권리
- 4, 5면 야, 너두 노조할 수 있어!
- 안국열 조합원 인터뷰
- 6, 7면 미조직노동자 보호? 정답은 노조할 권리 보장
- 8면 QR코드 홍보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과 실 권리

● 다가오는 한여름, 일터에서는?

심각해진 기후위기, 폭염이 두려워지는 나날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오기 전,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 5년간(18~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2명(사망 23명)입니다. 건설업 등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더불어 창고형 건물과 같이 옥내에서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도 폭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매년 폭염 시기가 다가오면, 뉴스나 기상청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하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작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노동환경을 점검, 위험을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수칙(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 그늘(바람)! 휴식!

-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② 그늘막 등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주기적인 환기와 냉방장치로 체감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③ 더운 시간대에는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방열 작업모·작업복·작업화 혹은 보냉 장구 착용을 권합니다.

▶ 강도 높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징후나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휴식하며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 휴게시설은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과 적절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쾌적한 공기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발생 시 대응 방법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사업주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7~8월은 온열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작업 중 온열질환 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바지락 2024 3~4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가 태반이고, 정부도 이런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런 가이드는 노동자에게 남의 얘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안전 수칙과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사업주에게 강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담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야, 너도 노조할 수 있어!”

금속노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 가입에 막연한 두려움이 든다고요? 같은 고충을 겪으며 일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해요.

이번 호의 주인공은 시흥안산지역지회의 안국열 조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일반분회로 2019년 가입하여 2023년 10월에 시흥안산지역지회 대한광통신분회를 설립하고 지난 5월 14일 단체협약을 체결해 금속노조의 일원이 된 안국열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근무하는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생산과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선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광섬유 코어 생산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노동조합에서 분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장시간 노동, 상여금 기본급화에도 침묵하는 사람들, 과정은 없고 결과만 던져주는 노사협의회...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지역지회에 발을 처음 디렸고, 상여금 기본급화 후 오르지 않는 임금과 3년간 3차례 이루어진 희망 퇴직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껴 노동조합을 시작하고자 결심했고, 동료들을 설득하며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 안국열 시흥안산지역지회의 조합원]



노동조합 설립이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았나요?



처음엔 노동조합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면 무엇이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조합원으로 주변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는 과정들, 승리하는 투쟁도 지켜보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지역지회를 봐왔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어려움보다 오히려 그동안의 망설임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로자에서 벗어나 주체적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를 모르겠다'던 사용자의 태도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성과로 소극적이던 조합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세상은 선진국이라 말하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희망퇴직!! 오르지 않는 임금!! 비정규직이 당연한 세상!!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조직노동자 보호?

정답은 노조할 권리 보장!

● 윤석열 정부의 반쪽짜리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

작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에 불과합니다. 30명 중 4명 정도만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에 막상 가입하기 어렵거나 망설이는 노동자가 많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미조직근로자 지원과’ 신설, ‘근로자 이음센터’ 설치 등 미조직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접근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바꾸지 않은 채 ‘보호’와 ‘지원’만으로는 말만 번지르르한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동자에게 최선의 선택은 노동조합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특성은 중대재해가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산재은폐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조는 산업재해를 공상처리 등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산재 은폐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대통령이 나서 미루자는 판에 노동조합 없이 노동자 개인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사업주를 상대로 주장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기조가 본질

정부 주장대로 미조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라면, 노동자 누구나 좀 더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하기 전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파업권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침해했다”고 판단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국민 담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과 처우보장’을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은 ‘노동약자’와 노동조합을 대비하여 마치 노동조합이 ‘노동약자’인 미조직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빼앗는 것처럼 만들고 분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창립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함께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 곳곳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합시다.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 「바지락」
QR코드 스캔하고 나의 권리 찾기!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바지락>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동자 권리 찾기 신청 QR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모음 신청,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보자!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 힘 있는 노동조합, 든든한 우리 편! 그래, 금속노조!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는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철강업종 노동자들과 수리 서비스, 콜센터, 판매영업직, 사무·연구직, 식당노동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 경기, 경남, 경주 등 전국 14개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직종, 성별, 국적, 나이와 상관없이 제조업, 관련 분야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업장 단위가 아닌 1명 개별 가입도 가능합니다.
- 제조업 부문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비정규직, 사무직 함께하는 금속노조.
노동자 권리 올리고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금속노조에 가입하세요.